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4

주 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부활 제 2 주일” (다해)	2007년 4월 15 일
복음 묵상:	요한 20,19-31	사도 5,12-16	묵시 1,9-11 ᄃ.12-13.17-19

.예수님은 세상을 단죄함으로써 구원하고자 했던 분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은 10 계명을 들어서 세세한 행동규정들을 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케 했습니다. 일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규정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법규를 어겨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의 제사를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단죄가 아니라 용서로써 사람을 구원합니다.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은총입니다. (안동 초창래 신부님 강론중에서)

수요 기도회		2007년4월11일(수요일)
진행: 이 니콜라스	음악: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0 명
복음 묵상: 요한 20.19-31		

나눔

- * 부활 신앙 작년에 이 말씀으로 나눔을 했는데 한사람을 위하여 < 토마 > 열흘 후에 나타나시어 만져보라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며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에 당신을 알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
- * 사순시기 중간에 피정을 갔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아픔같은것이 남는 피정이었는데 부활후의 복음을 보면 성모님의 눈물, 베드로의 아픔, 제자들은 두려움에 차 있고 그런것에 나를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성체조배하면서 " 한말씀만 하소서 " 간절히 간구.. 그 말씀에 잠기고 싶은 열망을 느낌.
- * 토마스의 의심을 생각해봄. 80 이된 이나이에 토마스와같은 마음으로 사는 내 모습을 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음 신앙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 * 3월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사순시기에 가게 되어서 기도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떠나는것 같고 ...주님의 품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는것을 느낌
- 16년동안 냉담하던 대녀가 3월 중순께 어느날 아침 집으로 찾아와서 성당을 가고 싶다고..... 부활 판공 성사까지 봄. 아주 기쁜 부활을 보냄 기쁜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

예언 말씀

- + **지금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 +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빛의 자녀로 만들었다.**
- + **나는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곳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완성 될것이다.**
- +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다 이 세상이 알수도 없고 이 세상이 즐수도 없는 참 평화를 주었다.**
- + **너희들은 많은것을 할려고 하지 마라. 어린아이 엄마 품에 안기듯 내안에 거 하라.**

수요 공지
 다음 화요일 < 4월 17일 > 찬미 미사후에 김 맥시밀리언 형제님께서 15~20 분 정도 신앙고백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참석가족: 신 미카엘라, 전 막달레나, 김 빅토리아, 김 맥시밀리안, 이 미카엘라,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석 레오, 박 소피아, 박 세실리아 <10 명 >

평화 기도회		2007년 4월 12일
진행: 박아가다	음악: 민바로로	복음 묵상: 요한 20,19-31

오늘은 미사와 성시간 후에 찬미와 말씀묵상을 하고 나서 박아가다 자매님의 가르침으로 간단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가르침: 내적 치유

- * 2 주전에 봉사자 교육이 있었는데, 내적치유에 대해서 문종원 신부께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모태기, 탄생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등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내적 상처 때문입니다. 내적 상처를 알아보는 23 가지 문답과 치유를 청원하는 기도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치유는 사랑이신 예수님께 나의 전생애를 말져 드릴때 가능합니다.
- *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바라 슬레몬 (문종원 역), **내 일생의 치유: 모태에서 노년까지**, 기쁜소식, 2006.

참석자: 박아가다, 최카타리나, 이카타리나, 김크리스티나, 정세실리아, 민바로로, 최베드로, 노을리아노 (총 8명)

- **본당에서 새로운 웹이 부활절을 기해 새로이 단장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가하시어 좋은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www.sjkoreancatholic.org 함께 좋은 웹을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그 동안 통합해서 발행하던 소식지를 각 기도회별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발전하기위하여 모양과 내용도 기도회의 특성을 살려 따로 Design 하는게 좋겠습니다.

+ 복음 [요한 20,19-31]



1분 명상

♡ 마음의 주인이 되라 ♡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등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 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견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 들이다가 한 번 웅졸해지면
 바늘 하나 꽃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 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 법정스님의 '무소유' 중에서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8)
“My Lord and my God!”